

제 13회 칼빈학술세미나

청교도신학

일시: 2022. 5. 3. 화요일 오후2시

장소: 개혁주의학술원 유튜브 채널

발표1- 폴 림 박사 (Vanderbilt Univ.)

“My Soul’s Story & Struggles: John Bunyan’s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in 21stc.Context”

발표2- 윤종훈 박사 (총신대)

청교도 칭의론의 두 얼굴 - John Owen 과 Richard Baxter

논평1- 이신열 (개혁주의학술원장)

논평2- 황대우 (개혁주의학술원책임연구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나의 영혼의 이야기와 투쟁들: 21세기 상황에서 본 존 번연의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폴 림(Paul C.H. Lim)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교회사 부교수.

<인사말 생략>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우리 이전의 17세기의 우리 동료 순례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듣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자서전을 집필한다면 너는 무엇을 강조하고 포함하겠는가? 당신의 영적이고 직업적인 전성기나 혹은 침체기에 대해서 적을 것인가?

잉글랜드와 뉴잉글랜드의 많은 청교도들은 지상에서의 행복으로 향하는 참된 길과 천상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러한 행함의 아이러니한 조치들 중 하나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했지만(failed)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 안에서 올바른 욕망들을 재점화하셔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길들을 ‘천로역정’을 향해서 재인도하시는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하다. 대부분의 청교도 목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여행에는 수많은 위험들, 함정들, 유혹들, 시련들 그리고 고된 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청교도 목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행자들과 전사들로 보았다. 청교도 실천 신성(Puritan Practical Divinity)의 핵심적 부분은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치유하는 것을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교구민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파괴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청교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다. 우리는 적어도 미국에서처럼 사람들이 영적인 번영보다는 육체적인 웰빙과 건강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이는 당신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코로나 19나 암 등과 같은 것보다는 덜 쉽게 표출되는 영적인 질병들의 증거들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한다. 그러나 16세기와 17세기의 미국의 청교도 목사들은 그들이 목양하고 사랑하고 준비시키도록 부름을 받은 교인들의 내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었다. 우리가 논의하고 듣게 되는 두 영국 청교도들은 바로 존 번연(John Bunyan)과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이다. 존 번연은 나의 강의 첫 중심주제다. 존 번연은 ‘천로역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그의 책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의 세계적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1678년 출간 이후로 ‘천로역정’은 200 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도 절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천로역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리처드 백스터는 두 번째 강의 포커스이며 또 다른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두 번째 책으로 1650년 출간된 '성도의 영원한 안식'(Saints Everlasting Rest)은 40년 동안 12 판을 인쇄했다. 그의 다른 명작인 '참된 목자'(The Reformed Pastor)는 1656년 출간되어서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의 작품의 완성하는 길로 향하는 작품으로 강하게 장려된 책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리처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나 '참된 목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에서 논의하고 배우고자 하는 텍스트는 존 번연의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인데, 이 책은 1666년 그가 감옥에서 집필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리처드 백스터 연구를 위한 정경에 속하는 '마거릿 백스터의 인생 개요'(A Breviate of the Life of Margaret Baxter) 라는 책을 다룰 것인데, 이 책은 그의 아내 마거릿이 죽은 직후 1680년에 집필되었다. 존 번연의 저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로부터 우리는 그가 어떻게 확신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번연이 이미 지은 것을 두려워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존 번연과 함께 나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자기묘사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 특히 존 번연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백스터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좀 다른 전환을 보게 된다. 우리는 그가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던 마거릿의 때아닌 죽음 이후에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슬픔에 대처하는 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리처드 백스터가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고들과 격려들의 목록들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제 존 번연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그는 1628년과 1688년 사이에 살았다. 그의 전 생애의 20%에 해당하는 중요한 12년 동안 존 번연은 그의 종교적 확신들에 대해서 타협하기를 거부한 이유로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60세까지 살았다. 그는 오늘 우리가 논하고 있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감옥에서 집필했다. 왜 그는 이 책을 감옥에서 완성했을까? 이는 많은 부분 청교들과 영국 성공회와의 갈등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어떻게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와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로 그리고 이후에는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빠른 역사적 개괄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헨리 8세는 캐서린 아라곤이 딸을 출산하게 된 이후 자신의 남성 후계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1534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하게 되었다. 결혼 무효가 교황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았다. 영국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 전통들과 신형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관점 모두에 대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기 위해 헨리 8세는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고 1534년의 수장령에서 자신을 군주이자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선언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영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영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루터파이거나 칼빈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성공회 교인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법으로 회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개혁파 칼빈주의자들은 영국 성공회가 칼빈주의적 은총론을 채택하면서도 로마 가톨릭 예전들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다. 청교도들은 매우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헨리 8세와 특히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제공된 "중도" 해결책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했다.

청교도들중 비록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영국 찰스 2세의 반동 (Restoration)과 그와 함께 발생한 1660년의 성공회 통치(Episcopal Church governance) 이전과 심지어 그 이후의 영국 성공회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약 125년까지의 역사를 짧게나마 생각해 보자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킹 제임스의 손자인 찰스 2세인데, 킹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는 '피의 남자'로서 처형되었는데, 당시는 참으로 대 혼란과 불안정의 시대였고 그 이후 크롬웰이 보호자로서 8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의 그의 아들 리처드가 매우 짧게 통치했고 그 이후에 1660년에 찰스 2세가 영국 군주제와 영국 성공회를 회복시켰다

우리가 이후 보겠지만, 존 번연과 리처드 벅스터 사이에 영국 성공회의 반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길들을 가지고 있다. 존 번연은 여러분들 중 몇몇은 잘 알고 있듯이 침례교인으로서 주교들과, 대주교들 그리고 영국 왕/여왕에 의해서 지도받는 영국 국교회의 상황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믿었다. 16세기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의 많은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 통치가 비성경적이며 단지 '반정도로만'(half-way) 완성된 종교개혁 운동의 징후라고 보았다. 스코틀랜드 킹 제임스 6세가 영국의 킹 제임스 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유명한 만트라를 외쳤는데, 그것은 "주교가 없다면 왕도 없다"였다. 이 구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과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제국 안에서 신적인 통치를 보좌하는 자들, 곧 주교들 사이의 권력 기초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존 번연은 바로 이러한 주교들의 교회 통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했다. 그러나 리처드 벅스터는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리처드 벅스터는 또한 영국 성공회 기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성만찬을 받기 이전에 한쪽 무릎을 꿇게 하면서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성경적으로 정당화된 정치로서의 영국 성공회 통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도록 누군가의 양심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리처드 벅스터에게는 찰스 2세가 166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자 주교직이 제안되었다. 벅스터는 그 주교직을 거절했는데, 아마 그것이 진정성이 결여된 제스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아마 1662년 8월 26일 성 바르톨로외의 날(St. Bartholomew's Day)에 목사직을 박탈당한 그의 경건한 동료 목사들과의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숫자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약 1500명에서부터 1800명의 목사가 직을 잃었다. 이는 영국 전체 목사 숫자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약 5분의 1의 목사가 자신들에게 강요된 것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로 인해서 그 목사직을 상실한 사실에 대해서 상상해 보라. 바로 그것이 존 번연과 벅스터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벅스터는 그의 자리를 상실했고 존 번연은 침례교도였기에 영국 국교회의 한 부분이었던 적이 없었다.

존 번연과 같은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와 속태우면서 살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는 "성도들의 모여진 회중"이었고 그렇기에 영국 국교회의 여물로부터 분리된 공동체로서 입증하는 증거가 받아들여질만하게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로만 구성된 것이었다. 리처드 벅스터는 교인들에 대한 교리문답과 그의 교회 회중들이 참된 의미에서 회심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개인적 마음-사역"(individual heart-work)으로 명명한 것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긴 했지만, 그는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는데 좀 더 방점을 두었다. 많은 청교도들 사이의 공통된 욕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는 그들의 여행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리처드 벅스터와 존 번연 모두가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통된 헌신을 보였다.

존 번연의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텍스트적으로 분석해 보자. 내가 교회에서

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텍스트는 나는 항상 저자가 그의 신학 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와 그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저자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또한 저자가 독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서 보게 될 것이다. '죄인의 괴수'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하는데, 존 번연의 책에서는 바울과 같은 자기묘사, 곧 바울이 자신을 양자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위치가 성 바울의 관점 혹은 사도 바울의 관점을 의미하는 자기묘사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죄인의 괴수였고 죄인의 괴수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넘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다. 게다가 바울은 이 넘치는 은혜의 책을 기록할 때 바울은 마치 투옥된 자로 묘사한다.

존 번연은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리고 존 번연은 어떻게 스스로를 묘사하는가? 그는 자신을 “가난한 종”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의 가공할만한 유혹들”에 대해서 적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존 번연은 독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존 번연은 독자들을 “약하고 유혹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그가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이며, 오직 신앙과 거룩 속에서의 하나님의 양육과 세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그는 그의 책 서문에서 그들을 참으로 그리워하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감옥의 담으로 인해서 교인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 베더퍼드의 그의 양무리들에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적고 있는데, 우리는 존 번연에 대한 이 강의와 백스터에 대한 다음 강의 모두에서 나는 기독교 역사가로서 이를 하고자 한다. 나는 현재의 동시대적인 시청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이 나의 해석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교도들 자신들의 말들 속에 나타난 그들에 대해서 경청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존 번연과 백스터에 대해서 직접 인용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의 책 “서문”은 영국 베더퍼드(Bedford) 지역의 양무리들에게 헌정되어 있다. 특히 빌립보서와 같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들인 바울 서신들처럼 존 번연은 그가 투옥되었을 때 이 책을 집필했다. 존 번연은 그리스도인들의 천로역정은 불가피하게 “의기소침과 고양됨”이 모두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치시게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실들 중 하나는 적어도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직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들이 도전적이고 절망적일 때에나 일들이 위대하게 잘 나갈 때 모두에 있어서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보다 온전한 그림이 필요하다.

주님의 유월절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경험들이라는 예시와 주님의 은총들의 시작점들을 기억하라는 시편 기자들의 지속적인 외침 모두 존 번연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존 번연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과 24장에서 그의 “회심 방식”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을 책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존 번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악들보다도 위에 있지만, 사탄의 유혹들도 그러하다”.

죄인 중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이 상황들과 경험들이 어떻게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악마적이라할지라도 존 번연의 치유하는 해결책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나의 공포들과 의심들, 슬픈 달들을 위로와 함께 기억하고 있다; 그것들은 나의 손에

뛰어난 콜리앗의 머리와 같다.”(지난날의 내 두려움과 의심과 슬픔들을 지금 회상해 볼 때, 이 회고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오 나의 큰 죄악들과 나의 큰 유혹들과 나의 큰 멸망에 대한 공포에 대한 기억들이여! 그것들이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위대한 도움과 나의 위대한 지원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나와 같은 비참한 인간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여!”

존 번연과 그의 동료 청교도들에 대해서 내가 깊게 인상을 받은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깊게 젖어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마치 존 번연의 팔을 바늘로 찌르면, 존 번연의 팔에서 성경이 피처럼 흘러나올 정도로 성경에 깊게 젖어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존 번연은 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젖과 꿀은 이 광야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기에 나태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존 번연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경험은 자신의 백성들의 경험과 유비적이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다. 존 번연은 동료 청교도들에게 나태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책에서 존 번연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내가 강의 초반에서 질문한 것을 기억해보라, 당신이 자서전을 쓴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숨길 것인가?)

존 번연은 자신이 “영국에서 매우 가난하고 가장 천박한 가정 출신”이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자서전을 기록한다면 이런 처지를 기록하겠는가? 아마도 예스 또는 노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번연은 기록했다.)

존 번연은 “천상적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는 그가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존 오웬(John Owen)은 영국 베드퍼드(Bedford) 지역의 땀장이었던 존 번연의 유창함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너는 땀장이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땀장은 화분과 펜 등을 고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땀장은 그렇게 근사한 직업은 아니다. 존 번연은 “매우 가난하고 가장 천박한 가정 출신”라고 말한다. 또한 그의 양육과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순조롭지 않았다고 말한다.

존 번연은 자신이 “젊은이들을 모든 형태의 부도덕과 불경건으로 이끈 주동자”였었다고 고백한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와 유사한 방식으로 존 번연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얼마나 그가 비천한지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고 있다. 그는 그 자신처럼 매우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아버지는 그녀와 존 번연에게 두 책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 책은 유용했다. 그 두 책 중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인간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건의 실천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는 아더 덴트(Arthur Dent)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루이스 베일리(Lewis Bayly) 주교에 의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큰 중요성을 가진 신학적 이슈들을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저자들로서 매우 인기가 많았다. 그는 또한 그와 그의 아내가 이들 책들을 함께 읽고서 몇몇 구절들은 자신에게 마음에 들었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명백한 묘사를 보여주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게 되지는 못했다”고 고백한다. 존 번연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경건한 책들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몇몇 일시적 유익을 얻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존 번연은 그의 진보를 사후 소급 적용(ex post facto)의 형식으로 분석한다. (존 번연이 그것에 대해 경험할 당시에 그 자신이

알았는지 아닌지 나에게 명료하지 않지만). 명백한 사실은 그가 “그것들이 영혼을 각성시킬만큼 그의 마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몇몇 욕망들을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높은 곳, 제사장, 성직자, 제의, 예배 그리고 다른 것들을 ”미신의 정신(영)“과 달린(어울려지낸) 결과로 불렀다.

여기서 1666년의 글쓰기는 그는 영국 성공회를 그 모든 예전과 다른 것들과 그 신학, 그리고 성공회 인물들을 로마 가톨릭적인 미신에 깊이 빠져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존 번연은 그가 한 때 존경했던 영국 국교회의 장비(장식물)들로 인해서 그가 아직도 구약성경의 경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탄식했다. 즉 하나님 은총의 현실(실재)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침례교도 회중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를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다.

여기서 존 번연은 그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한쪽으로 말렸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위로 외에 다른 어떤 위로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당했다. (천국은 이미 물건너갔고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속에서 내 죄를 채우고자 하는 큰 욕망을 발견하고 더 지을 죄를 찾아 그 달콤함을 맛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최대한 그 달콤함들을 내 배에 채우기 위해 서둘렀던 것이다.) 존 번연은 죄악이 의로움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존 번연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죄악이 의로움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렇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그는 죄를 대담하게 범할수도 있다.

존 번연은 그의 결혼 이후에도 그의 어린 시절의 죄악된 길로 계속 갔으며 어떤 경우에는 불경건한 ‘비천한 자’로 알려진 어느 여성은 존 번연은 “그녀가 자신의 생애 동안에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너만큼 악담을 퍼붓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존 번연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몇몇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태도의 개혁이나 행동의 향상으로만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존 번연은 그가 “보다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전보다 더 유쾌함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동안 내가 알아온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나는 나의 스포츠들과 놀이들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존 번연은 어떤 “가난한 사람”과 조우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존 번연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왔고 몇몇 “말과 삶에 있어서의 몇몇 외형적 개혁이 모두 나타나게 되었고” 자신 앞의 계명을 두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플로라이드 사진 뒤의 플로라이드 사진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각 달마다 존 번연이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과 같았는지에 대한 스냅사진을 찍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존 번연은 은혜없는 사람처럼 걸어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존 번연에게 있어서 이후 회심 체험을 경험하고 또 의롭다고 하시는 은총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 채 율법만 지키는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번연은 너가 하나님의 은총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 채 종교적인 동작을 통해서 가는 것도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을 나는 기본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존 번연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구분을 하고 있다. 즉 존 번연은 네가 율법 준수자가 될 수 있으며 네가 계명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라고 믿게 되는 환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시기 동안 그의 이웃들은 존 번연에 대해서 그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며, 새롭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었으며 존 번연의 그의 삶과 태도들에 있어서의 위대하고 유명한(매우 훌륭한) 변화들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했다”. 하지만 존 번연은 12개월 동안 은혜를 모르고서 이러한 삶을 지속했다.

영국 베더퍼드(Bedford)에서 존 번연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을 주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사랑으로 방문을 하셔서 주의 말씀과 약속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새롭게 되고, 위로받고 또한 지원받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의 가난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음의 이러한 말들을 주목해 보라: 새롭게 되었네, 위로받았네, 사탄의 유혹에 맞설 수 있게 도움을 받았네. 새롭게 됨의 이러한 주제들, 위로, 시련과 환란의 시대 속에서 견인은 존 번연의 목회신학의 핵심으로 지속적으로 남게 되었다.

존 번연은 또한 “자신의 의로움이 더럽고 어떠한 선을 행하기에도 얼마나 불충분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여성들의 말도 듣게 된다. 그 여성들의 말들은 존 번연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고 들렸다. “말씀과 약속의 위로”가 존 번연 자신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가증스러움과 반역”과 대조되는 대척점에 놓이게 되었다.

존 번연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너가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지? 그러나 너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너는 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존 번연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행위에 있어서 네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너는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다른식으로 말하자면 네가 어떻게 예정되었는가가 존 번연에게 있어서 불타는 질문이었다.

존 번연은 이렇게 거의 2년 동안이나 “심각하게 공격받고 당혹스러웠고” “수 많은 주 동안 억눌려져있고 의기소침한 시절을 보내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당신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경험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광인의 일기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내적인 음성, 혹은 성령께서 존 번연을 격려하셔서 말씀하셨다: “창세기 처음부터 읽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으라. 그리하여 주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라.”

존 번연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 것은 바로 성경의 결혼식 비유에 등장하는 말씀이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그의 이 책 전체를 통해 볼 때 존 번연은 성경 본문을 따라서 실제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며 존 번연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위-디오니시우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인물들 중 그 어떤 인물도 존 번연의 종교적 상상력과 신학적 상상력에 도달하지 않는다. 존 번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며 이 결혼식 비유에서(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아직도 자리가 있어니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다.

존 번연에게 있어서 “아직도 자리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매우 달콤한 말씀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번연이 이 본문은 읽으면서 때로는 ‘공포로 고통받다는 사실’ 아시기에,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참으로 그 성경구절과 특정한 시기의 존 번연의 읽기 사이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역동성인데, 주님께서 그 특정한 시기의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존 번연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어떻게 매일의 인간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예정적인 은총과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의 세밀한 역동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존 번연의 흔들림과 가라앉음에 대한 이러한 매혹적인 묘사들은 “나의 영혼 속에서 크게 일어나며 나의 마음 속에서 (지옥처럼 가라앉는) 낙심들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여기 존 번연이 그의 경건한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매혹적인 구절들이 있다: “ 때로는 나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고서 나에게 연민을 보내고, 나에게 약속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나 자신이 나의 손가락으로 태양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그들의 말대로 하자마자 내 모든 감각과 감정이 나를 대항했다. 나는 목도했다. 내마음은 죄를 짓고 정죄하는 율법 아래에 있음)”

그가 잠시 동안 확신을 주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침울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존 번연은 어떻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어떤 설교에서 그는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말씀을 듣는다. “나의 사랑”이 그 설교자의 초점였다. 영혼이 “유혹과 버림 속에서” 있다면; 그렇다면 이 가난한 영혼은 유혹으로 공격받고 고통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숨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하라. 너가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존 번연은 “너는 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고 이 말씀을 20번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과 공포 사이에 있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비로소 이제 위로와 희망으로 존 번연은 가득차게 되었다. 하지만 “아아! 40일도 가지 못해서 나는 다시금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존 번연의 상승과 하강을 다시 보게 된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실존적 질문들 뿐 아니라, 존 번연은 또한 코란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숫자의 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든 종교는 자신이 옳다고 보고 다른 종교들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등과 관련한 난타하는 질문들도 가지고 있었다.

존 번연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종교와의 문제, 비교종교학적이고 변증학적인 질문도 생각을 한 것이다.

존 번연은 명백하게 개들과 개구리들과 말들의 실존상태를 부러워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의 영원한 무게 아래서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나 개구리,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존 번연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그가 구원을 충분히 강하게 열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투쟁하고 있으며, 낙담하며,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자신이 죄로 고통받는만큼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은 1년 동안 계속되었다. 존 번연의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는 존 번연의 영적인 우울증과 심리학적 장애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경계선에 대해서 놀라게 하는 수 많은 구절들이 존재한다. 로마서 8장 31절과 요한복음 14장 19절은 존 번연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단지 “암시와 짧은 방문”뿐이었고, 그것은 매우 달콤했으며, 그것은 어떤 조짐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정의와 존 번연의 죄악스러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서로를 포용하며 서로에게 입맞춤할 수 있다.” 완벽함과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불순종

적이고 죄악스러운 영혼은 시편 기자의 언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포옹하며 입을 맞추게 된다. 바로 이것이 존 번연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이 존 번연이 의심과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로 인해서 졸도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존 번연을 “그렇게 달콤하게” 쉬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강한 위로와 하늘로부터의 축복받은 증거”를 주셨다. 존 번연의 내적 투쟁에 대한 주목할만한 것들 중 하나는 그것이 큰 진자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다윗이나 베드로보다는 가룟유다에게 더 가까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존 번연은 그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위와 아래로 날 뛰었다.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우리는 존 번연이 그가 가인과 같다고 믿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인상적으로 그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에 큰 공포 아래서 주님을 찾기 위해 갔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고 다음과 같은 말로 주님께 울부짖었다: “ 오 주님 당신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나는 그것을 곧바로 빠르게 말하지 않았지만, 달콤함으로 그것은 나에게 돌아왔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왔다”. 이제 나는 고요함 가운데 침대로 돌아갔고 내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영혼은 새로워져 있었다.

많은 내적 투쟁 이후에 존 번연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진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너가 이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라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그 이전에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며,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존 번연은 다시금 영적으로 낙담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주가 지나가기 전에 나는 다시금 낙담하기 시작했고, 내가 즐겼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기만당하고 파괴될 것이라는 공포가 지속되었다.” 그런 다음 존 번연은 성경으로부터 그의 상태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들과 느낌들과 말들의 무상한 성격은 결코 그의 영혼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그의 목회적 심리학적 전략 속에서 존 번연이 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텍스트들보다 성경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우리 자신의 목회적 노력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 다음 그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듣게 된다. 존 번연은 마틴 루터의 율법-복음 변증법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며, 혹은 율법의 완성 자체이신 예수에 의해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명백한 긴장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나에게 경이로움이었고 율법과 진노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에게 자리를 내어준다고 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진노의 말씀이 영광스럽지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 더 넘치기 때문이다..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만이 남게 되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 속에서 존 번연은 그가 성경을 접근하는 길 속에서 경험한 느리지만 급진적인 변혁에 대해서 적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더 이상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향한 위협으로 가득한 테러의 텍스트가 아니다. 이제 처음으로 존 번연은 그의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제공에 대한 확실성의 빛 가운데서 퇴보와 자신의 구원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존 번연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교한 방식들을 참되게 평가하는데, 이는 다른 많은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존 번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사나운 폭풍우의 방해스러운 부분만이 남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천둥이 나의 위로 이미 지나 갔고, 단지 몇몇 방울의 비만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이전의 놀람과 고뇌는 매우 아프고 또한 깊기 때문에 그것은 불로 거슬러진 자들에게 닥치는 것처럼 자주 여전히 나에게도 다가온다.”

(나는 변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런 섬세한 이해를 좋아한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고, 불로 상함을 입었을 때 때때로 그 상처가 실제로 그 트라우마나 여운이 남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과 칭의의 본질에 대한 존 변연의 점증하는 확신을 묘사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존 변연의 회심/확신에 대한 격변적인 순간에 대한 그의 묘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그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고자 한다: “언제 존 변연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나의 양심에 모든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공포를 느끼면서 몇몇 황급함이 엄습했는데, ‘너의 의로움은 하늘에 있다’는 이 문장이 나의 영혼에게 갑자기 다가왔다; 나의 의로움으로서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눈들로 나는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었든지,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이 부족하다고 결코 나에게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또한 나는 나의 마음의 훌륭한 구조가 나의 의로움을 보다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나의 나쁜 구조들이 나의 의로움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인데, 그 분은 어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히브리서 13장 8절). 이제 나의 사슬들은 나의 발들로부터 참으로 떨어져나가게 되었고, 나는 나의 고뇌와 쇠사슬로부터 해방되게 되었고, 나의 유혹들도 도망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성경말씀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바로 이 점으로부터 존 변연은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동일시하게 되어서 “나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적고 있다. “전체적인 그리스도”, 곧 단지 그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 속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존 변연을 위해서 신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전체적인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존 변연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확신, 위로 그리고 용기를 주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그 확신! 무엇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 수년간의 감옥 생활이거나 물질적인 손해들이거나 가난이라고 할지라도 - 하나님 옆에서의 그의 입지는 (존 변연에게 있어서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도 중요한 유일한 입지이다) 안전하다는 위로. 마침내 존 변연의 확신과 위로에 대한 의식을 맹렬하게 파괴하는 그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존 변연은 에베소서 6장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순례자로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다.

존 변연의 신학적이고 목회적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존 변연의 첫 아내가 거의 결혼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아더 덴트(Arthur Dent)의 책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Plain Man’s Pathway to Heaven)과 루이스 베일리(Lewis Bayly) 주교의 책 ‘경건의 실천’(Practice of Piety)이라는 두 형성적인(변연에게 영향을 끼친) 책들에 대해서도 존 변연은 확실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존 변연에 대한 나의 독서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성경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과 가르침들이 존 번연으로부터 피처럼 흘러나오는가? 존 번연에 의한 몇몇 핵심적인 발견들로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4가지)

1. 첫째로, 존 번연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가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발견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그러한 연합으로부터 오는 공로의 전가라는 구체적인 유익이라는 사실을 그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1520년의 작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에서 이를 유사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년)의 문답 60번호에도 등장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얼마나 의로운가?”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순전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만족,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을 선물하신다. 내가 마치 결코 죄를 범하거나 내가 결코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순종하셨듯이”.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급진적 동일시, 곧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공로의 전가라고 부르는 이것은 루터, 우르시누스(Ursinus), 올레비아누스(Olevianus) 그리고 이제 존 번연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 존 번연에 대해서 특히 빈틈이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존 번연 자신의 실존적 곤경에 대한 해결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의 투쟁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얼마나 상세한지에 대한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 몸이 항상 고려되는 공통의 혹은 공적인 사람(Common or Public person)”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는 연합적 머리(Federal Head)였는데, 다르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타락과 반항에서 나오는 저주들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또한 둘째 아담의 올바른과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유익들도 받게 된다.

3. 존 번연의 영적인 전투들은 결국 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판명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영적인 투쟁들이 그를 성경으로 이끌게 되었고 “그 이전 보다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 보다 깊게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존 번연에게 있어서 강력하게 다가온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하신 약속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큰 최악들은 위대한 은총들을 끌어당긴다(draw out).” 그리고 “최악이 가장 끔찍하고 강한 곳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높게 강하게 나타난다.”

4. 존 번연은 영국 베드퍼드(Bedford) 지역에 위치한 그의 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성만찬 가운데 존재하는 성도들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를 그의 아내와 자녀들 다음으로 그리워했다고 적고 있다.

이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바라본 존 번연과 그의 책 ‘죄인 중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 대한 결론적인 코멘트들이다. 폴란드 로마 가톨릭주의는 요한 바오로 2세를 낳았고 또한 견고한 전통 등이 존재하지만 자주 죄의식과 수치심이라는 수렁에 빠져있고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 죄와 수치심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범주에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죄와 수치로부터의 구원을 통한 자유와 기쁨이며, 이는 제조되거나 고안된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되게 변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 번연이 자기 속에서 영혼의 투쟁들을 거치면서 의로움은 자신 밖에서 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존 번연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리차드 백스터에

서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강의가 모두 마친 이후에 질문과 코멘트를 받고자 한다.(질의응답은 논평으로 대신합니다)

특강 주제: 청교도 칭의론의 두 얼굴- John Owen과 Richard Baxter.

저는 오늘 특강을 통해 종교개혁의 혁명적 모토였던 이신칭의론(Justification by Faith) 사상이 잉글랜드 청교도 세계 속에 유입되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청교도신학의 양대산맥으로 일컬어지는 존 오웬과 리차드 박스터의 칭의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1. 루터의 칭의론과 대륙의 칭의론이 잉글랜드에 유입

마르틴 루터에 의해 제기된 이신칭의 사상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제임스 파커(J. Packer)와 알리스터 맥그래스(A. McGrath)가 잘 지적한 바처럼, 이신칭의론은 성삼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펼쳐진 은혜의 신비에 핵심 사상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교리였다. 초기 청교도들은 루터의 칭의론에 크게 의존하였다.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당대 카톨릭 예수회 변증가였던 Robert Bellarmine(1542-1621)과 당대 알미니안주의자 Hugo Grotius(1583-1645), 그리고 소시니안주의자 Jonas Schlichtingius(1592-1661)에 의해 정면 도전을 받아왔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잉글랜드 Tudor 왕조 시대에 런던에서는 루터의 칭의론과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 바젤의 칭의론이 펼쳐졌으며, 엘리자베스 1세 당대에 활동하였던 앙글리칸 신학의 건축가인 Richard Hooker의 “하박국 설교집”(Sermons on Habakkuk”, 1586)이 발행되면서 칭의론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2. 청교도들의 칭의론에 대한 이해

칭의론 개념이 미약하였으나, 17세기에 활동하였던 후기 청교도들 사이에 칭의론에 대한 양분된 견해가 대두되었다.

초기 청교도였던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윌리엄 로이(William Rye), 사이몬 피쉬(Simon Fish), 존 프릿(John Frith), 당대 대표적인 학자였던 로버트 반즈(Robert Barnes) 등은 어거스틴주의적 칭의론을 추구하되 아직 칭의에 대한 본질과 정체성에 대하여 막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칭의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기보다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총애로 이해하였다.

칭의론에 대한 청교도 초기 연구는 로버트 반즈의 “헨리 8세 왕에 드리는 탄원서”(Supplication unto King Henry VIII, 1534)에서 강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언급은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구원에 관한 설교”(Homily of Salvation)에 제시되었다. 크랜머는 이 작품을 통하여 멜랑히톤의 이신칭의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에도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개념이 미약하였다.

잉글랜드에서 칭의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7세기였다. 존 오웬을 중심으로 토마스 게테커(Thomas Gataker), 존 그래일(John Graile), 조수아 왓슨(Joshua Watson) 등은 제네바의 존 칼빈의 주장을 펼친 반면, 리차드 박스터를 위시한 크리스토퍼 카트라이트(Christopher Cartwright), 벤자민 우드브리지(Benjamin Woodbridge) 등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보다는 오히려 은혜언약의 필수조건인 인간의 본래적 신앙, 순종, 거룩성 등이 칭의론의 조건이 된다는 또 다른 칭의론을 전개하였다.

3. 존 오웬과 리차드 박스터 칭의론 논쟁과정

17세기 후기 잉글랜드 신학계에 펼쳐졌던 칭의론 논쟁은 박스터가 1649년 “칭의론의 경구들”(Aphorisms of Justification)이라는 작품을 출간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 책은 Allison이 지적한 바처럼, 박스터가 어느 날 갑자기 칭의론 논쟁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정도로 폭풍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되었다.

리차드 박스터는 1638년 23세에 앙글리칸의 목회자로 임명된 이후 약 53년동안 Stewart(Stuart) 왕조 아래 목회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는 잉글랜드 시민혁명이 발발한 1642년 이래로 의회군의 군종목사로 활동하기까지 청교도의 신학사상과 개혁주의 신학에 정통하였으며 제한속죄론을 비롯하여 존 칼빈의 칭의론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의회파의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이끄는 신형군대(New Model Army)에 가담하여 청교도혁명의 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는 군종목사로 활동하면서 1565년 나스비 전투(Naseby)에 참여한 이후 잉글랜드 안에 두 개의 신학 사상 즉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와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이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박스터는 당시 의회파 군대를 이끌었던 페어팩스(Fairfax) 진영에서 군종목사로 활동하던 율법폐기론자(Antinomian)인 존 샬트마쉬(John Saltmarsh, d.1647)의 설교와 가르침이 잉글랜드에 만연해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당시 의회파 군인들이 율법폐기론자들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강조하고 신자에게 명령된 율법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 반기독교인, 율법폐기론자들보다 더 심한 도덕방종 자들”이라고 지칭하였다.

약 2년동안 군종목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잉글랜드에 만연된 율법폐기론의 심각성을 경험하였으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군목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율법폐기론의 폐허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쟁이 종식되던 해인 1649년에 이 작품을 출판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전쟁터의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잉글랜드 백성들이 이 내전을 통해 동족 간 살인 행위의 모습에 분노와 아픔을 경험하였다. 그는 그동안 스튜어트 왕조에서 벌어진 내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정한 공화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거룩한 공화국”(A Holy Commonwealth)이라는 작품을 출간하였다. 그는 1649년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지주이자 알미니안주의자였던 휴고 그로티우스를 비롯하여 알미니안주의자 존 굿윈(John Goodwin, 1594-1665), 윌리엄 브래드쇼(William Bradshaw, 1571-1618), 존 볼(John Ball, 1585-1640), 조오지 다운함(George Downham, d.1634)등의 글들을 자주 인용하였다.

박스터의 첫 작품이 출간되기 전 존 칼빈의 제네바 신학을 기초로 잉글랜드에 개혁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신학을 체계화시킨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은 1643년에 “알미니안주의 해부”(Display of Arminianism)라는 작품을 통해 알미니안 신학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는 1647년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종식,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A Treatise of the Redemption and Reconciliation That is in the Blood of Christ”라는 작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종식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및 보편구원론(Universal Atonement)의 문제점들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 자세히 다루었다. 이미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율법폐기론의 문제점을 간파하였던 박스터는 존 오웬의 이 작품을 율법폐기론적인 입장을 옹호한다고 평가하고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기 위하여 1649년에 상기한 이 책을 출판하였다.

박스터의 작품이 출간되자 안소니 버게스(Anthony Burgess)와 리차드 바인즈(Richard Vines)를 비롯한 존 윌리스(John Wallis), 조오지 로슨(George Lawson), 존 크란돈(John

Crandon), 토마스 툴리(Thomas Tully), 윌리엄 에어(William Eyre)등은 박스터의 칭의론의 형식적 원인(Formal Cause) 즉 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박스터는 1655년 자신의 작품인 “그의 믿음의 신앙고백”(Confession of His Faith, Especially Concerning the Interest of Repentance and sincere Obedience to Christ, in our Justification & Salvation”을 출판하여 오웬의 신학을 반박하며 **칭의의 수단으로서 믿음을 강조하였다**. 1655년 오웬은 “복음적 옹호”(Vindiciae Evangelicae)를 출간하여 박스터의 이러한 주장은 **소시니안주의자들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자, 박스터는 1657년에 “성례권에 대한 논쟁들”(Certain Disputations of Right to Sacraments, and the True Nature of Visible Christianity Defending Them against Several Sorts of Opponents, Especially Against the Second Assault of that Pious, Reverend and Dear Brother Mr. Thomas Blake)라는 작품을 출간하여 **오웬의 신학을 율법폐기론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소시니안주의로 지목한 사실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박스터는 핀너 홀(Pinner’s Hall)에서 행한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신자 자신의 의를 통한 칭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존 오웬은 1677년 개혁주의 칭의론의 대작인 “이신칭의론”(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을 출간함으로써 그동안 뜨거운 논쟁점이었던 잉글랜드 칭의론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4. 존 오웬의 이신칭의론

1) 이신칭의 성경적 개념 및 형식적 원인

오웬은 잠17:15 “악인을 의롭다하고”, 욥 13:18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줄 아노라”, 마 12:37 “네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롬 2:13 “의롭다하심을 얻으리니” 등 성경 구절에 사용된 “의롭다”라는 단어는 선천적 의로움이 아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법정적 선언**’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는 ‘내적인 또는 생득적 개념적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법정적 선언’적 의미임을 주장하였다. 오웬은 이신칭의의 형식적(공적) 원인(The Formal Cause)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의의 전가론은 개혁주의 신학의 초석이 되었다.

2)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무엇일까?

오웬은 의의 전가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의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첫째 의는 그리스도의 의 이전에 이미 의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 행하는 의의 경우로서, 이러한 의로움을 통해 바른 인식과 판단이 형성되며 내재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령 창 30: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라고 주장했던 야곱의 언급을 살펴볼 때, 야곱은 내적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다(esteemed)는 것이다.

둘째 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의의 전가를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서, 이러한 의로움은 우리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며, 내재적인 의로움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 형성된 의로움을 의미한다. 오웬은 진정한 의의 전가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웬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4가지 범주를 통해 설명하였다.

첫째는 “자연적 관계로 인한 심판을 통하여”(ex justitia propter relationem naturalem)

형성되었다. 즉, 아담의 죄가 자연적 관계를 통해 후손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었다.

이러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적(Federal) 그리고 자연적(Natural) 관계를 통해 의의 전가가 성취되었다.

둘째, “**자원적 보증을 통하여**”(ex voluntaria sponsione) 성취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로 물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담보삼아 보증인이 되심으로 의의 전가를 이루셨다.

셋째는 “**능욕을 통하여**”(ex injuria)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죄와 죄성과 무관하지만, 자신을 내어주시는 능욕을 통해 이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의의전가를 성취하셨다.

넷째는, “**오직 은혜를 통하여**”(ex mera gratia)로서, 의의 전가는 죄인의 배경과 정황 그리고 선행과 공로에 무관한 외부로부터 주어진 오직 은혜의 결과임을 논증하였다.

3)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선택받은 죄인에게 전가되었을까?

오웬의 논리는 분명하다. 오웬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의 전가는 **택자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유기적 연합**(the Mystic Union with Christ)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보증인**”(Surety)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다.

특히 오웬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인격체”(One Person)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관습적이거나 용례적인 인격체가 아닌 “신비적 인격체”(Mystical Person)를 지칭하며,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비적 인격체로 하나로 연합되는 원인은 죄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영원한 약속(Eternal Pact)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신비적으로 연합시키는 은혜와 영광의 사역은,

첫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그림자이거나 유사한 것이 결코 아닌 **그리스도만의 독특한 사역**이다.

둘째,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와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양자됨과 칭의와 성화와 성도의 견인 및 부활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오웬에게 있어서 신비적 연합 사역은 구원의 서정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인 개념적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기인하여 신부와 신랑의 영적인 부부의 결합(Spiritual Conjugal bond)을 의미한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오웬의 신비적 연합론은 그의 모든 구원의 서정을 하나로 묶는 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새언약의 보증인(Surety, Undertaker)이자 그리스도의 진정성(Veracity)

오웬의 칭의론 핵심 요소는 **기독교적 신비적 연합론과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론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의 사이의 영원한 중재자로서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증인 사역은 교회와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론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새 언약의 보증인 개념은 그리스도의 속죄론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속죄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 중재자로서 율법적 요구에 순종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오웬이 이해한 “보증인”(Surety, Guarantor)의 개념은 무엇일까?

오웬은 당대의 도덕을법폐기론자들(Antinomians- Tobias Crisp, John Saltmarsh)과 인간 이성의 무한적 능력을 강조하는 소시니안주의자들(Socinians)과 수많은 논쟁과 논박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의 초석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오웬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증인’에 대한 소시니안주의자들의 왜곡된 이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소시니안주의자들은 주 그리스도는 언약의 약속의 확신으로서 우리 신자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웬은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증인이 되셨음을 선언하였다.

5) 소결론

오웬의 이신칭의론은 속죄사역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능동적 및 수동적 순종을 통한 의의 전가를 내포하고 있고 이는 순간적이고도 찰라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박스터를 비롯한 소시니안들이 주장한 “신자의 생득적인 본래적 의”(Personal Inherent Righteousness)를 통한 칭의론을 철저히 거부하였으며, 죄인의 칭의 사건은 내부에서 또는 생득적으로, 본래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임을 천명하였다. 그는 생득적 의가 결코 신자의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 속에 내재하는 습관적 죄악(Habitual Sin) 때문이며,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래적 의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의롭다고 칭해질만큼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5. 리처드 박스터의 이신칭의론

박스터는 존 오웬과는 달리 소년 시절부터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의 지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의 신학 작업은 공식적인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연구와 자기 성찰 및 관리를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학 과정 속에서 그는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종교회의의 방법론과 앙글리칸의 중도적 또는 유화적 신학과 존 오웬을 위시한 개혁주의 신학의 중간에 서서 양자의 조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중도(middle way), 온건한(moderate) 신학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절충주의(Maverick Ecclecticism)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박스터가 온건한 중립적인 비국교도(Non-aligned Moderate Nonconformist)의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은 중세 카톨릭 신학의 완성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후대 오캄의 윌리엄에게 보편성을 거부하고 개별성의 길을 열어준 둔스 스코투스(Johannes Duns Scotus, 1266-1308), 오캄의 윌리엄(William of Ockham, 1300-1360)과 당대 알미니안주의자인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출신인 존 카메론(John Cameron, 1579-1623)과 프랑스 소뮈르 학파(French School of Saumur)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박스터는 자신의 작품인 “Richard Baxter’s Catholic Theology”을 통하여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서로 화해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로마 카톨릭은 이신칭의의 형식적(공적) 원인(The Formal Cause)으로서 은혜의 습관의 주입(infusion)을 통하여 죄가 추방되며 신자가

의로운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시니안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행위를 통한 의로움”(justitia operum, the righteousness of works)을 수용하였으며, 이들은 이를 “인격적으로 생득하게 된 복음적 의로움”(a personal inherent, evangelical righteousness)라고 지칭하였다. 비록 카톨릭은 인간의 행위적 의로움은 조건적이며 절대적 완전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박스터는 이신칭의의 공적 원인을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Imputation)가 아닌 **신자의 개별적 믿음(Personal Faith)**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신자의 의로 간주되는 “개별적인 믿음”은 이신칭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박스터는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옛 언약(Old Covenant)**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 사람은 **새 언약(New Covenant)**에 근거하여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된 믿음과 순종, 거룩의 삶을 통해 의롭다하심을 얻는 칭의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조건을 “**칭의적 믿음(Justifying Faith)**”, **개인적 의(Personal Righteousness)** 또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인격적 생득적인 복음적 의로움**”이라고 지칭하였다(Richard Baxter' Methodus, III, 308-309).

1) 인간이해

박스터의 인간관에는 그의 칭의론의 특징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 파커가 지적한 바처럼, 그의 초기 인간이해는 청교도주의적이었으며 어거스틴주의였고 정통신학에 입각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자신의 신학적 구조인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죄성과 본질을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인간의 정신 능력(Mental Faculty)이 생명력이 있는 강한 힘(Vital Active Power)과 이해 즉 지성(Intellect)과 의지(Wil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지적으로 판단할 능력인 이성과 이성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스터는 주장하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였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법적 통치에 대한 책임적 행동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는 상급과 형벌로 주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법률을 제정**하셨고 인간들이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수행하도록 사랑과 두려움으로 가르치셨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하신 법에 근거한 심판을 통해 상급과 형벌을 집행**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박스터는 청교도들의 인간의 전적타락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이성의 자연적 능력과 결정에 관한 자유는 남아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박스터의 인간론과 죄론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통치론(doctrin de regno Dei)적인 관점, 정치신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였다.

2) 속죄론

앞서 지적한 바처럼, 박스터는 영국 시민전쟁 당시 의회파의 군대가 율법폐기론자인 샬트마쉬의 사상에 반대하기 위해 1649년 “칭의론의 경구들”을 출간하였으며, 알미니안주의자인 휴고 그로티우스의 “**보편속죄론(Universal Atonement)**”과 존 카메론(John Cameron)과 프랑스 소뮈르학파(French School of Saumur)의 가설적 보편구원론(Hyoerthetical Universalism)의 중간지대를 형성하였다. 그는 딤편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

고 있는 모든 만민을 위해 대속사역을 감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보편속죄론**과,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해 흘리셨지만, 그 피의 효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가설적 보편구원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속죄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설적 보편구원론을 주장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의 전가는 새 언약인 은혜 언약의 전제조건인 신자의 믿음과 순종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으로 보편속죄론과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에 좀 더 근접한 주장을 펼쳤다.

또한 그의 속죄론은 인간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정치신학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자신의 정치이론에 근거하여 **통치자이신 왕과 그의 백성인 예속된 종으로 규정**하였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법적 율레(Legal Code)**로 규정하였다.

3) 삼위일체적 언약론

박스터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삼위일체론은 자신의 **정치신학적 구도**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

즉,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Dominus)**, **통치자(Rector)** 그리고 **은혜수여자(Benefactor)**로 규정하고,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Kingdom of God)**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통치 수단(도구)인 법(Law)**을 세우셨다.

박스터는 **하나님의 왕국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타락 이전 사람을 통치하던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 당시는 자연법(the Law of Nature)을 인간통치 도구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새로운 은혜 언약이 체결된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체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부의 왕국으로서 더 이상 법이 필요 없는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찬 첫 번째 왕국으로 회복된 단계를 의미한다.

박스터는 **자연법의 통치도구**는 새로운 은혜 언약 아래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통치도구의 변경(Change)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주장하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통치자와 통치자의 법에 순종을 요구받는 주종적인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사람과 **옛 언약(Old Covenant)**을 체결하였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성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통해 옛언약의 성취를 이루셨고 그리스도와의 **새언약**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첫 언약의 조건에 의하면 사람은 타락하던 날에 육적과 영적으로 죽어 마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완전한 실행을 유예하시고 즉시 원시복음으로 은혜 언약인 새로운 법을 반포하였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법(The Laws of Grace)**인 **새 언약(New Covenant)**을 통해 새로운 왕(A New King)으로 등극하였다. 이 새로운 왕은 새로운 법을 세우셨는데, 이 법은 새언약으로서 **은혜언약**이며 이는 “**조건적인 언약**”이었다. 이처럼 그는 비록 새 언약은 구원주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약속이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원적 믿음**”(Saving Faith)이라는 조건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의 작품, Of Saving Faith: That is is not only Gradually, but Specially Distinct from All Common Faith).

이처럼 박스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정치신학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즉, 그리스도는 희생을 통해 성부에게 대속의 만족을 이루심으로 인해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New King)로 세워졌으며 구속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왕국(Second Kingdom)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박스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육으로 묘사했으며, 그의 무죄성과 처녀탄생 및 육체적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 및 그의 사역에 대한 주장은 전통적인 청교도들과 맥을 같이하였다. 또한 신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삼중직의 절대적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칭의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칭의적 신앙 즉 구원적 신앙(Justifying Faith, Saving Faith)**이라는 조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을 주장하였다.

그는 칭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되, 첫째는, “그리스도 측면”(ex parte Christi)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우리의 측면”(ex parte nosti)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칭의적 신앙”**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신자의 칭의의 형식적 원인으로서는 **“믿음”의 조건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정치신학적 삼권 칭의론(The Political-theological Doctrine of the Justification)

박스터는 “**교리적 논쟁의 종결**”(An End of Doctrinal Controversies)이라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칭의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는 “Justice”와 “Justification”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만 매우 애매모호하게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전자는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며, 후자는 칭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칭의”를 3가지로 구분하되,

첫째는 **입법적 칭의(Constitutive Justification)**,

둘째, **사법적 칭의(Judicial Justification)**,

셋째, **행정적 칭의(Executive Justification)**로 분류하였다.

박스터는 칭의는 단회적, 일회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하나님은 칭의의 주관자가 되셔서 아담과 행위 율법(The Law of Works)을 체결하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한 칭의를 얻는 새 언약(New Covenant)인 **은혜의 법(The Law of Grace)**을 제정하시되, 이 은혜의 법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아울러 인간의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박스터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입법적(구성적) 칭의**이다. 이 칭의의 효과적인 원인(Efficient Cause)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이며,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움이 되시며, 칭의의 도구는 다름 아닌 용서와 치유의 언약이며, 이러한 언약을 실제적으로 수여받을 수 있는 수단은 우리의 **믿음(Faith)**과 **회개(Conversion)** 또는 이 언약적 조건에 대한 **수행(Works)**이며, 이러한 믿음의 주요 원인은 성령이시며 믿음의 도구는 말씀이며 이러한 믿음의 중재적 이행대상은 인간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인들이 의롭다는 칭함을 얻도록 하나님 자신의 법(Law)을 설정하시고 이 법의 수여자(Lawgiver)가 되시는 칭의의 시스템을 설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새 언약의 법의 구성적 칭의는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칭의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사법적 칭의(Judicial Justification)로서 그는 칭의론을 현재적 칭의(Initial Justification)와 미래(종말)적 칭의(Final Justification)로 구분하였다. 현재적 칭의는 입법적 칭의이며, 미래적 칭의는 사법적, 선언적(Declarative, Sentential) 칭의로서, 사법적 칭의가 마지막 날에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공적인 사법적 칭의와 실제적인 사법적 칭의로 나누고, 앞서 제기한 입법적 칭의를 공적인 사법적 칭의(Publick Judicial Justification)로 지칭하고 선언적인 사법적 칭의를 실제적인 사법적 칭의(Actual Judicial Justification)로 구분하였다. 그는 마지막 날에 인간의 무능력함과 언약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는 모습 속에서 사탄의 수많은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고소에 대하여 신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천명하되,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자 자신의 믿음과 거룩성에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고소에 반하여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1. 만일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당연하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러한 사탄의 고소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수 있다: 1.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위반된 율법의 종식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만족케 되었으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용서의 선물과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마지막 날 사탄의 모든 꾀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법적 칭의를 제시하였는데, 이 칭의 과정의 핵심은 은혜언약에 대한 신자의 “믿음과 순종, 행위”에 따라 결정짓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행정적 칭의(Executive Justification)로서, 이는 신자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진행된 입법적 칭의 즉 믿음의 시작 단계의 칭의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사법적 칭의를 이루는 단계의 전 과정에서 진행되는 칭의를 의미한다. 박스터는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칭의’와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질 칭의’로 구분하였다. 일차적으로 행정적 칭의는 신자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따라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의미하며, 순종과 믿음이 가져오는 성화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세계 속에서 지옥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서 누릴 영화(Glorification)의 세계를 의미한다. 즉, 이 칭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시작되며, 순간적인 찰라적 현상으로 주어진 칭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수행되고 앞으로 닥칠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상급과 보상을 받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6. 존 오웬과 리차드 박스터 칭의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먼저 양자 간의 유사점과 일치점은 기본적인 인간론에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전적타락에 대한 제네바 신학을 존중하고 Dorcht 신조(1618)를 중시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의도 및 요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들은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속죄 경륜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은 매우 개혁주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차이점은 많은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째, 오웬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공식적 원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라고 주장한 반면, 박스터는 의의 전가라기보다는 새 언약인 은혜언약의 성취조건인 믿음과 순종 그리고 거룩한 삶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오웬은 신자의 **칭의의 과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The Mystic Union with Christ)**을 기초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지만, 박스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관점을 생략하거나 또는 약화시키고 대신에 언약 신학을 강조하면서 옛 언약의 실패로 인한 새 언약인 은혜 언약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됨에 있어서 **언약의 필수조건인 믿음과 회개, 절대적 순종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점이다.**

셋째, 오웬은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 의, 무한성, 엄위하심, 사랑, 자비로 명명하였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성자의 희생을 통해 대속사업을 완수하시고 영원 전에 예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 분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박스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개혁주의와 무관하다.

즉, 하나님을 통치자, 절대자, 군주, 왕으로 묘사하고 인간을 종, 순종이행자로 묘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자가 다스리는 왕국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절대적인 율법으로 명명하였다.**

박스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의 세계를 선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방법론(Political Methodology)**을 구사하여 모든 인류를 통치하며 **균립하시는 하나님의 군주적인 왕국(regnum Dei)**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신학적 방법론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사상과 **새도덕운동(New Moral Movement)**에 영향 하에 정립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분하되,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첫째 하나님은 **“입법자로서의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로서 믿음의 무소불위 기증자”(Gods Will de Debito, Absolute Donor of Faith)**로 설명하였고,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로서의 사역과 의지(God Will de Rerum Eventu)를 지닌 자”**로 분석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을 입법자이자 사법적 법 집행자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오웬은 전통적인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함에 반하여, 박스터는 정치신학적 삼권분립의 원칙을 이신칭의에 적용하였다. 즉, 입법적 칭의(Justification), 사법적 칭의(Judicial Justification), 행정적 칭의(Executive Justification)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그의 칭의론 구분 방법은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일회성과 단회성, 순간성에 근거한 이신칭의론에 반하여, 여러 단계를 통해 수행되는 최종적 칭의론을 주장한 것이다. 칭의론에 있어서 박스터의 삼권에 근거한 정치신학적 해석은 결국 **소시니안주의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칭의론이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Council of Trent(1546)를 통해 신자의 칭의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반대하였으며(Session6, Chap.7), 단회적으로, 법정적 선언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개혁주의 신학을 반대하며, 단회적이 아닌 점진적이고도 변화적인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간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한 명백한 오류였다. 그러나 박스터는 정치신학적 삼권적 구도를 통해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오용 또는 활용을 하였던 것이다

박스터의 행위적 칭의론의 주장은 두 인물이 활동할 당시 잉글랜드 사회가 온갖 비참함과 애처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시대적 정황과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역경의 위기 가운데 오웬과 박스터의 칭의론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즉, 존 오웬은 존 칼빈을 위시한 장로교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함에 반하여, 리차드 박스터는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거룩성을 추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박종훈의 논문 “청교도 칭의론의 두 얼굴: John Owen과 Richard Baxter” 논평

황대우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오늘 특강은 두 명의 청교도 신학자 오웬과 박스터의 칭의론을 비교 연구한 것인데, 요약하면 오웬의 칭의론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칭의론을 계승한 내용인데 반해, 박스터의 칭의론은 인간의 본래적인 신앙과 순종과 거룩성 등을 칭의의 조건으로 간주함으로써 종교개혁적 이신칭의 개념을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서 ‘의인 됨’을 오웬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된 결과로 보는 반면에, 박스터는 의의 전가를 수용하는 인간의 믿음, 즉 신앙적 결단의 결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론과 관련하여 두 청교도 신학자의 강조점의 차이는 결국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웬은 구원과 이신칭의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 및 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박스터는 그것을 수용하는 인간 편의 마음과 자세를 강조한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점.

1. 박교수님께서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가 종교개혁 이전에도, 즉 위클리프와 후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칭의론의 역사적 발전을 추적한 McGrath의 저작 <하나님의 의>(Iustitia Dei)에서도 그런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 오웬의 1677년 저술 <이신칭의론>(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천착한 이신칭의 교리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에게서 비롯된 교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구원론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 루터의 칭의론과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2. 의의 전가에 대한 오웬의 설명 방법인 “4가지 범주”는 루터나 칼빈의 칭의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방법론입니다. 박스터의 삼권 칭의론 즉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칭의’라는 구분 역시 칭의를 설명하는 독특한 방법론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론은 17세기가 정통 스코틀랜드의 시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설명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때론 더 큰 신학적 혼란과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단순화나 도표화의 방법이 반드시 더 나은 방법으로 간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오웬은 구약의 야곱이 ‘내적인 의’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박스터는 ‘인격적 생득적 복음적 의’를 칭의의 형식적 원인으로 간주하는데, 이 둘 사이, 즉 오웬의 ‘내적인 의’와 박스터의 ‘인격적 생득적 복음적 의’가 서로 다른 개념이겠지만 정말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박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오웬의 ‘내적인 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박스터의 ‘인격적 생득적 복음적 의’가 소시니주의자들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평가가 과연 정당한지, 오웬과 박스터의 칭의론을 대조하기 위한 오해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4.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오웬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그런 구분 없이 오직 하나의 순종, 즉 자발적

순종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오웬의 구분과 칼빈의 구분 없음 사이에는 과연 형식적인 차이만 존재하고, 어떤 신학적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의의 전가 교리에 대한 오웬의 생각과 칼빈의 생각은 핵심적 내용상으로 일치한다는 주장을 저는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하여 의의 전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5. 박스터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칭의적 신앙'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신앙적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스터가 칭의의 조건으로 제시한 '인격적 생득적 복음적 의'를 소시니안들의 '생득적 의'와 같은 의미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둘 사이의 언어 사용이 매우 유사할지라도 같은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 본 논문은 박스터의 칭의론 혹은 구원론을 보편속죄론과 가설적 보편구원론의 중간지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중간지대'라는 평가가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스터가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 '보편'의 개념을 수용한다는 것인지, 수용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다.